

회원사 동정

現代重工業



美國 워싱턴州, 변압기 受注

現代重工業(株) 중전기사업본부는 최근 美國의 워싱턴州 시애틀 전력청으로부터 하이드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1500만불 상당의 230kV급 변압기 패키지를 일괄 수주하였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는 1963년에 미국의 GE社가 공급했던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국제입찰로 실시된 이번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은 다국적기업인 ABB, 미국의 GE 및 이탈리아의 안살도社 등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끝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현대변압기의 세계적 기술수준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중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년들어서는 캐나다에 500kV급 변압기(400만불) 수출, 일본 동경 전력 변압기 입찰참가자격 획득 등 동남아 및 중동시장을 탈피하여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선 다변화에 성공함으로써 변압기의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曉星重工業



蔣英實賞 수상

曉星重工業(株)(代表:柳鍾烈)는 최근 전력수요 급증으로 345kV계통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91년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압 차단기의 접촉소자를 개발, 상품화에 성공함으로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고 송전전압인 345kV에 적용되는 초고압 차단기의 아크접촉소자의 국산화는 국내 접촉

소자 제조기술을 한단계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된다. 접촉소자는 텅스텐과 구리의 분말을 적절하게 혼합한 뒤 성형 소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화된다.

연구팀은 텅스텐과 구리의 혼합을 높이기 위해 기존 V형 용기대신 유니버설조인트를 모방한 3차원 혼합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 3차원 혼합기는 금속분말을 이용하는 다른 제조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형프레스의 금형이나 압력, 초기 혼합시 텅스텐과 구리의 혼합비 등에 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0개 이상 특성이 각기 다른 접촉 소자를 제작해 성능이 뛰어난 최종 제품을 만들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아트접촉소자의 차단보증능력(20회)은 기존 수입품(10회)의 두배이며 차단용량(25GVA)도 기존 제품(15GVA)보다 크게 향상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800kV급 차단기의 개발에 대비한 기술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170kV급 차단기용 접촉소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데 이어 345kV급 접촉소자까지 국산화 함으로써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됐다.

LG産電



'95년 事業計劃 확정

LG산전 CU(대표:李喜鍾)는 올해를 21세기 초일류 산전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경영의 글로벌화와 현지밀착형 상품모델을 개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LG산전이 확정된 「9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LG산전, 금성제전, 금성기전, LG하니웰 등 산전 CU 4개사의 총매출목표를 지난해 1조 4500억원보다 16.0% 증가한 1조 6820억원으로 책정,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적자사업을 개선하는 등 사업구조를 대폭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LG산전 CU는 또 오는 2000년 매출규모를 총

5조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 지난해 말 현재 7개 지사, 4개 현지법인인 오는 2000년 15개 지사, 20개 현지법인으로 늘리기로 하고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36.4% 늘어난 2210억원으로 책정,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비율을 13.1%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계열사별 매출목표를 보면 LG산전이 지난해(7600억원)보다 14.7% 늘어난 8720억원, 금성제전이 지난해(2750억원)보다 12.7% 늘어난 3100억원, 금성기전이 지난해(3380억원)보다 21.3% 늘어난 4100억원, LG 하나웰이 지난해(770억원)보다 16.8% 늘어난 900억원 등이다.

LG산전 CU는 이와 관련, 올해 시설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1.0% 늘어난 총 1200억원으로 잡고 LG산전 90억원을 투입하는 등 LG산전의 시설투자에 550억원, 금성계전 CNC코어가공머신 도입 등에 210억원을, 금성기전의 경우 330억원을, 시설확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투자에 지난해 대비 12.8% 늘어난 690억원을 책정하고 금성산전 235억원을, 금성계전 180억원을, LG기전의 2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電氣組合



WTO대비, 조합원 경쟁력 강화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이사장 : 林都洙)은 올해 주요추진업무계획으로 WTO에 대비한 조합원 경쟁력강화 방안 강구, 단체표준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수립하고, 이의 목표달성에 진력할 방침이다.

電氣組合은 WTO에 대비한 조합원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시회 참관 및 전시장 개설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한·베트남 전기공업협의회 구성, 韓·日, 韓·中업무 활성화에 매진키로 했으며, 단체표준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규격 제정, 인증품목 확대, 지도·진단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정보

전달 및 기술세미나개최 등에 힘쓰는 한편 조합의 역점사업중의 하나인 기능인력양성소 건립 추진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의 확립과 실시설계의 신속한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電氣組合은 이밖에도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중전기기 통계확립 및 ISO 9000 품질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지도·진단 강화, 21세기 중전기기 발전전략 수립 등의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大韓電線



지난해 매출 대폭 신장, 전년대비 30% 증가

大韓電線(株)(대표 : 兪채준)은 지난해 전선부문 5천억원을 포함 총 7천억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달성, 전년대비 3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한전선의 매출실적 향상은 전선부문 기초소재인 SCR, ROD의 국내외 기반확보와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성장이 크게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한전선은 특히 지난해 광통신분야의 지속적인 설비증설과 기술개발을 통해 고도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한 가입자광케이블 시대에 대비한데다 전력분야 또한 345kV OF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술 노하우에 대한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전부문에서의 전자식 WHM, 정보통신부문의 동기식 광전송장치, CATV전송시스템 개발, 전력기기부문의 345kV급 접속자재류 국산화 등 신기술개발과 스텔레스 산업부문도 사업다각화와 경영합리화를 완수함으로써 비전선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양적·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대한전선은 그러나 지난해 전기동, PVC 등 원부자재가격의 급등과 체비용증대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외형성장에 비해 손익면에서는 기대치보다 다소 밀린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電氣技師協會



전기관계 단체장 간담회 개최

權龍得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12일,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51층 무역클럽(다이아몬드룸)으로 전기계 주요인사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 6차 전기관계 단체장 간담회에는 윤희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임도수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송엽 대한전기학회 회장, 최동천 전선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철수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임인주 전기공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간담회는 지난해초 대한전기협회 윤희우 상근부회장이 전기계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할 것을 제의, 매달 주회자를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다.

LG電線



누설 동축 케이블 開發

LG電線(代表: 權炆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2.6기가 헤르쯔까지 사용이 가능한 누설동축 케이블을 개발하고 지하철 5호선 구간에 설치하기로 했다.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LG전선이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초광대역 누설동축 케이블은 이동전화나 무선호출기 경찰용 무선망 그리고 소방용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무선통신용 케이블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이동전화나 무선호출기 등 무선통신 시스템은 주파수 대역이 1기가 미만의 각각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는 '97년부터 실용화될 CS(개인휴대통신)는 1.7기가대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므로 현재까지 설치된 국내 무선 통신선로 시스템으로는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LG전선이 이번에 개발한 초광대역 누설동축 케이블은 절연재료로 열을 차단하는 글라스 테

이프를 사용하는 등 피복재를 모두 난연처리함으로써 케이블로 인한 화재의 확산과 독성가스로 진화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LG측은 밝혔다.

LG전선은 이번 초광대역 누설동축 케이블의 국산화로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大成電線



中國 광서성 北海시에 공장 건설

국내 중소전선업체의 리더기업으로 자리매김한 大成電線(代表: 梁燦伯)이 구랍 14일 지난 '93년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해온 中國 현지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약정을 마무리짓고 오는 10월께 준공과 함께 본격 생산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랍 31일 대성전선은 중국측 광서통신발전총공사 및 홍콩케이블전신유한공사와 합작으로 건설기로 한 광서성 北海시의 통신케이블라인설계 중 생산설비구축을 비롯한 부지매입 등 제반문제를 결정짓고 사실상 공장설립에 필요한 조항을 최종확정했다고 알려졌다.

총자본금 1600만달러 가운데 1차적으로 800만달러 규모가 투자될 「北海華成전람유한공사」의 합작지분율은 대성전선이 25%, 광서통신발전총공사가 70%, 홍콩케이블전신유한공사가 5%씩 각각 분담받게 된다.

부지 1만2천평 규모에 들어서게 될 북해화성전람유한공사에 大成電線은 설립자본금 2백만달러를 비롯 특히 통신케이블 기술 노하우(50만달러 상당) 제공과 함께 설비·제작에 관한 생산설비 전 반사항도 관리감독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大成電線의 이번 中國진출은 지난 93년 베트남, 일본 등 해외법인 설립에 이어 3번째 이룬 쾌거로 이는 내수시장 협소와 무역질서의 세계화에 따른 해외생산기지의 확보로 수출교두보를 마련하고 저렴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이용한 국제경쟁력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